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12. 12(수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김진성 • ☎ (044) 201-4142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가덕신공항 추진 수면 위로, 김해공항 확장은 안돼” 보도 관련

- 김해신공항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12일 프레시안 보도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
 - 첫째, 김해신공항은 군사공항이고 소음과 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에 대하여
 - ☞ 신설 활주로는 국토부가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설하며, 활주로 배치 최적화,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며, 장애물 절취 없이도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
 - 둘째, 김해신공항은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극복할 수 없고, 중장거리 노선 확충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
 - ☞ 목표연도(개항 후 30년 후인 '56년) 예측수요 2,925만명 보다 많은 3,800만명 수요처리가 가능하도록 공항시설을 계획 중이며, 미주 및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
 - 셋째, 김해신공항은 새 활주로의 길이가 3,200m에 그쳐 대형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
 - ☞ F급 항공기인 A380 취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, 유도로를 계획 중

○ 넷째, 제주도도 소음 문제로 공항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

☞ 급증하는 제주지역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신공항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주2공항 사업을 추진 중

<관련 보도내용 (프레시안, 12.12)>

- ◆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, 부산시가 수용할 수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
 - 김해신공항은 소음, 안전, 군사공항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실상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. 항공수요와 중장거리 노선 확충 등 한계도 극복할 수 없고 새 활주로의 길이가 3200m에 그쳐 대형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음.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고, 제주도도 소음문제로 공항을 포기했음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김진성 사무관(☎ 044-201-41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